2040년 충남인과 삶터

2018. 3. 20.

미래전략연구단 홍 원 표

충남연구원
ChungNam Institute

CONTENTS

01. 충남의 미래 2040 연구 소개

02. 2040년 충남인

03. 2040년 충남의 삶터

01. 충남의 미래 2040 연구: 연구 방식 개요

‘알아서 하는’ 자율 연구

- 연구의 자율성 대폭 부여 → 자발적인 자율적 협동연구의 시작 *모델 확산 중
- 결론이 미리 정해져 있지 않은 연구

  ➡ 기획 과정에 많은 노력 투입(기획편집위원회와 자문위원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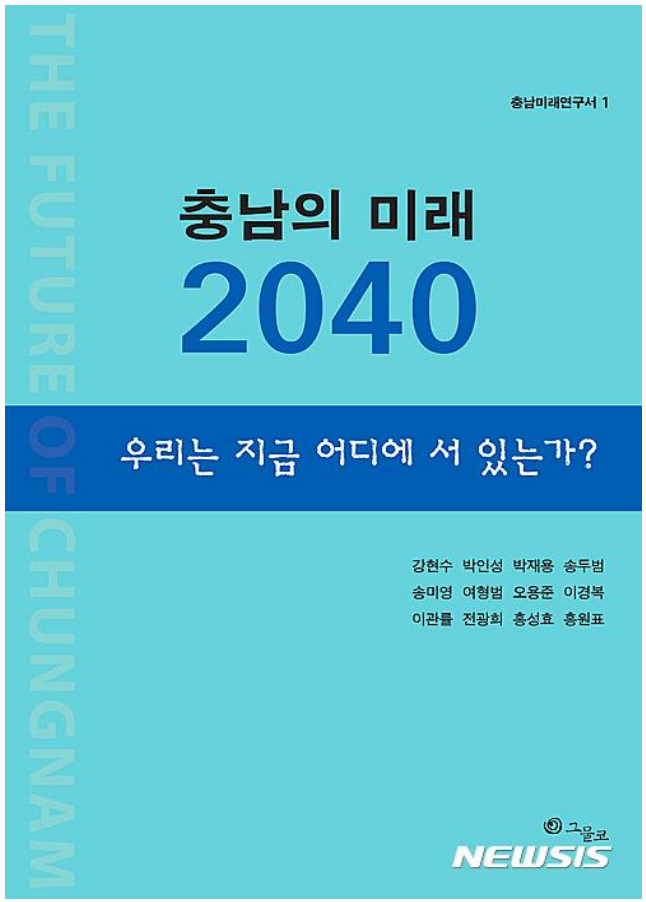
‘충남’을 이야기하자

- 글로벌 트렌드 연구, 나라 차원의 미래연구는 시중에 넘쳐나
- 충남의 현실 진단에서 시작: GNP가 아니라 PNG로 접근
- 전문가뿐 아니라 도민이 함께 써야 한다(2권은 전문가, 도민 등 39명이 집필)

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을 제시하자

- 미래예측보다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제시하자
- 미래연구를 미래설계능력을 기르는 과정
- 향후 충남 미래연구의 마중물이 되도록 하자. 보고서가 아니라 책으로

01. 충남의 미래 2040 연구 소개: 1권, 2권



01. 충남의 미래 2040 연구 소개: 충남의 미래상

충남의 현 상황에 대한 인식

- 현 충남은 인적 자본, 경제 자본은 정상; 자연 자본 마모, 사회적 자본 미약
- '지역 사회'의 실종: 아이에게 학교나 학원, 어른에게 직장이었을 뿐

  ➡ 온전한 쉼터, 돌봄, 일터, 배움터, 놀이터로서 지역 사회를 일으켜 세우자

미래 충남 행복을 위한 ABC

- 자율(Autonomy): 자신의 삶을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
- 균형(Balance): 높은 삶의 만족도 비결. 자연자본 회복과 사회적 자본 축적·강화
- 연결(Connection): 생활/생산/혁신 주체들의 연결, 수도권, 중국 지역과의 상생

충남의 미래상: 삶에 힘이 되는 행복한 충남

- 가족, 지역, 국가, 시장 비중을 현 1:0:1:8 사회에서 1:2:2:5 사회로 가자
- 국가 복지의 적당 확대, 지역 비중의 증대
- 향후 충남 미래에 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하는 '마중물'이 되기를

02. 2040년 충남인: 미래 예측

초고령화 사회 진입

- 209만(2015)에서 239만(2040)으로 인구 증가
- 고령화율 15.2%(2015) → 35.2%(2040)

➡ 충남의 미래 인구구조는 출산, 사망보다는 **인구이동**이 좌우할 것

가구 가족 형태의 다양화

- 비혼, 만혼, 이혼, 장수: 1-2인 가구 증가, 여성 가구주 비중 증가
- 외국인 인구의 증가, 다문화2세의 증가

➡ 표준가족(부모+자녀)에 바탕을 둔 현 정책 탈피, 다양한 가족형태를 포용해야

시군 인구 격차 심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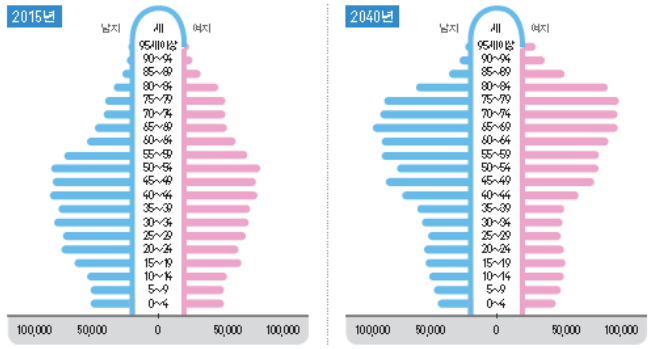
- 충남 북부권으로 인구 집중 심화, 농촌지역의 인구 감소

02. 2040년 충남인: 미래예측 그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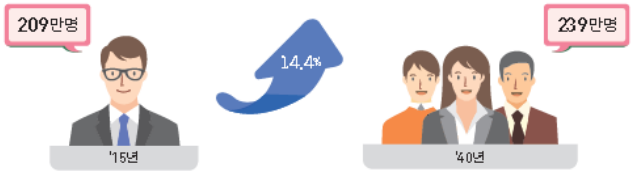
2040년 충남의 인구구조는?

충남 미래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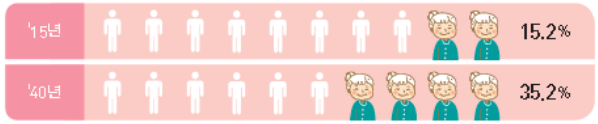
충남의 인구구조 변화



충남의 인구증가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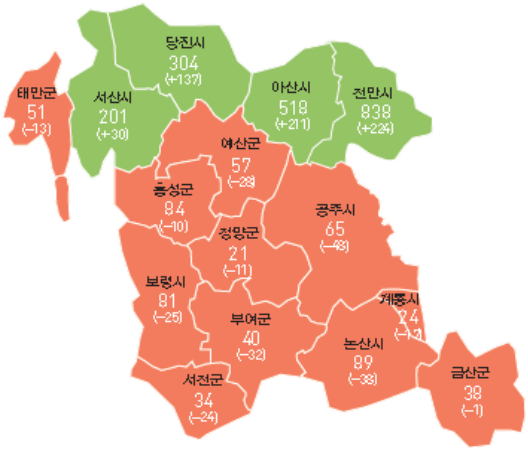
충남의 고령화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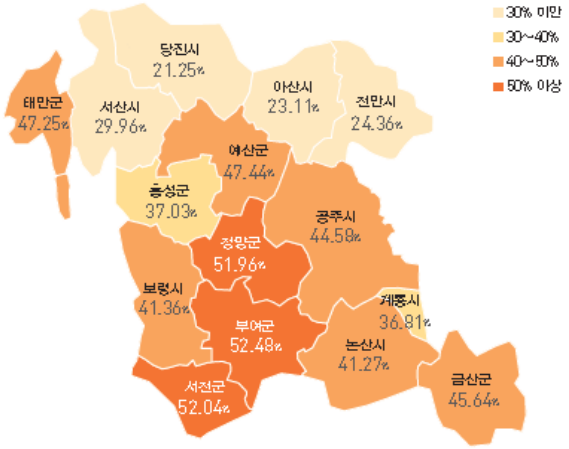
※ 출처 : 충남연구원(2015), 충남경제인뉴스레터 제300호 재구성

2040년 충남 시군별 인구추계 (2015년 대비 인구 증감량)

※ 단위: 천명



2040년 충남 시군별 인구추계로 본 고령화율



※ 자료 : 충남연구원(2016), 충남리포트 225호

02. 2040년 충남인: 인구이동과 세대 간 분업

성공적인 기존 세대 간 분업

- 베이비부머는 도시로 나가 도시직종에 자리잡고 부모세대는 농촌에 남아 농사
- 직업과 거주지를 둘러싼 세대 간 분업

  ➡ 사회변동에 대한 성공적인 대응

새로운 지형

- 저성장 시대로의 진입: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실업난, 자산가격의 하락
- 글로벌화, 스마트화: 변변한 일자리의 감소(사무직, 전문직, 숙련생산직)
- 교통통신의 발달: 도농의 상향평준화 또는 도농 수렴
- 장수사회의 도래: 노후 소일거리 → 또 하나의 직업
- 세대 간 농촌에 대한 인식 격차: 베이비부머와 자식세대의 확연한 차이

02. 2040년 충남인: 새로운 세대 간 분업

신 분업의 고리: 자산 분배와 돌봄

- 저성장 시대 베이비부머와 자식세대 간 자산 분배와 일자리 선택
- 베이비부머 손자손녀세대의 양육과 베이비부머 자신의 돌봄

➡ 베이비부머의 직업과 거주지 변동을 불러올 것인가

세대 간 자산분배와 일자리

- 베이비부머는 주택소비를 줄이고 자식세대에 자산을 이전 → 거주지 변동?
- 베이비부머 노년 일자리와 자식세대의 일자리 선택 → 불확실성 증폭

상호 돌봄을 위한 선택

- 손자세대의 양육 분담에 베이비부머의 참여 필요
- 베이비부머를 위한 의료서비스 중요

➡ 지리적으로 인접해서 살아야 하는 요구 증가: 최대 2시간 내 교통거리

02. 2040년 충남인: 신 세대 분업이 충남에 던지는 과제

지역 시민사회의 형성

- 전통 농촌공동체 → 자발성과 자원에 의한 시민사회
- 상이한 가치관과 생활방식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지역사회

충남형 라이프스타일의 정립

- 도시나 농촌과 구분되는 '도농지역(都農地域)'의 라이프스타일의 구축
-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삶의 추구
- 교통·통신인프라, 다양한 경제활동기회, 자연환경이 주는 혜택을 바탕으로 해야

미래 세대의 도농 교류 활성화

- 농촌이 낯선 베이비부머 자식세대 → 국가적 차원의 대책 필요
- 베이비부머 자식세대가 농촌과 친해지는 프로그램이 있어야
- 다양성의 매력 덩어리 충남지역이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

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정주체계 예상

대도시권 성장과 중소도시의 쇠퇴

- 천안·아산권의 대도시로의 성장(인구 약 140만)과 세종·대전권의 확장
- 농촌 중심지 격인 중소도시의 쇠퇴 → 정주체계의 양극화
- 배후지 인구 감소, 중심지 기능 대체, 일자리 유출, 경제 온라인화

대도시권 성장에 따른 새로운 지역 격차

- 대도시권에 편입되지 않는 서산, 태안, 보령, 서천 등 지역의 도시서비스
- 내포권의 발전동력을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가?
- 천안·아산권은 수도권의 확장인가, 충청권 메가폴리스의 형성인가

중소도시의 쇠퇴에 따른 영향

- 농촌지역 자원의 고갈
- 도시서비스 접근성의 불평등: 권역 격차, 계층 격차
- 도농지역의 매력 소실 → 충남의 정체성에 영향

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정주체계의 미래상

서부권 거점도시의 발전

- 천안·아산권, 세종·대전권, 내포권의 정립
- 내포권의 발전동력은 바다(건너)에서 온다(별도 설명)
- 인천–청주–서산 공항 트라이앵글, 인천–평택–서산 항만 트라이앵글

중소도시의 재활성화

- 오프라인 기능의 중심지로 재정립: 학습, 문화, 예술, 정치의 거점
- 농업활동에 근거한 학습, 다양한 경제활동기회, 주민참여 활동의 중심지

도농 융합의 메카 충남

- 학생들의 도농 교류: 초중고 학점제 도입으로 가속화→특색 있는 교육프로그램
- 도시농업의 메카로 부상: 생산물 선물, 기부 등
- 지역 특색의 먹거리, 휴양, 즐길 거리 등

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

자가용 없이도 다닐만한 충남을 만들어야

- 생활권 간 광역교통: 버스 일변도 → 버스+철도
- 생활권 내 생활교통: 버스 → 버스+다양한 서비스 모델(DRT, 우버택시 등)

디지털 격차에 대비해야

- 기존 세대 간 격차는 기본적으로 소멸, 계층별(특히 사회적 약자) 격차 부상
- 교육기회 부족, 접근비용에 의한 제한 → 디지털 문맹 퇴치, 공공 와이파이 보급

프로슈머의 시대를 열자

- 생산은 기업, 소비는 가계라는 이분법과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음
- 태양광 자가 발전, 3D 프린팅, 공유경제 등 발전이 기술적 기초 제공
- 양극화 사회에서 프로슈머의 중요성, 지역사회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

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태안반도

내포권 발전의 동력은 어디에서 오는가

- 세종·대전권, 천안·아산권은 수도권 기능적 분산을 디딤돌로 성장
- 내포권의 발전은 수도권이 아니라 바다(건너)에서 온다: 동아시아, 해양
- 태안반도는 대한민국 해양전략의 교두보

한중 해저터널을 둘러싼 인식의 전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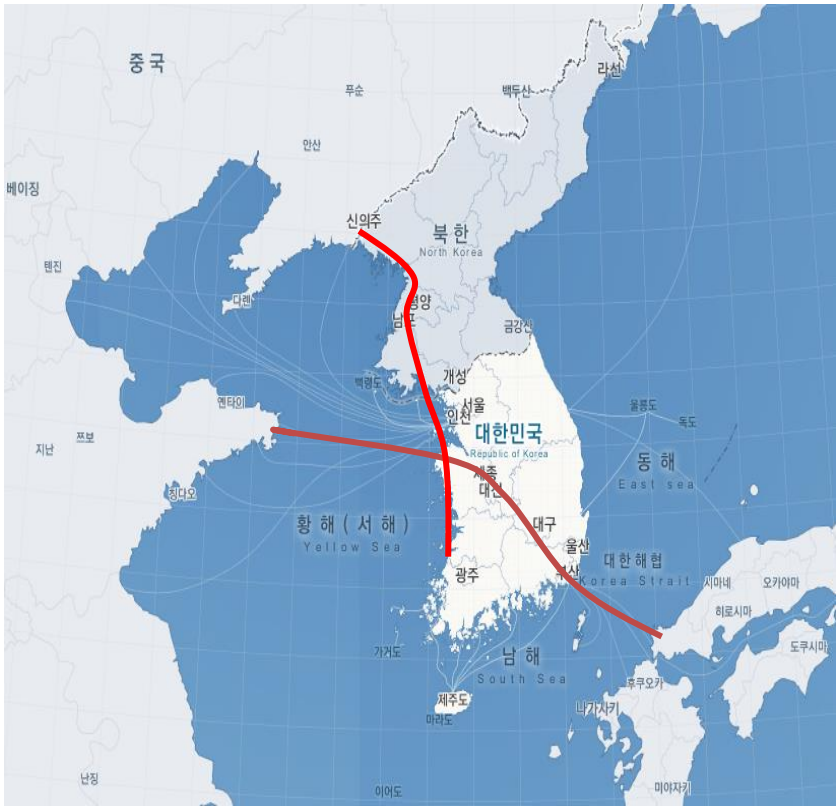
- 중국은 나라라기보다 '대륙'이다: 2-3억 규모 5개 경제권
- '한중'이 아니라 한중일이다: 끝점vs. 연결점
- 이 논의는 국가전략의 틀에서 뒷받침되어야 ➡ 『해양 충남 大구상』 연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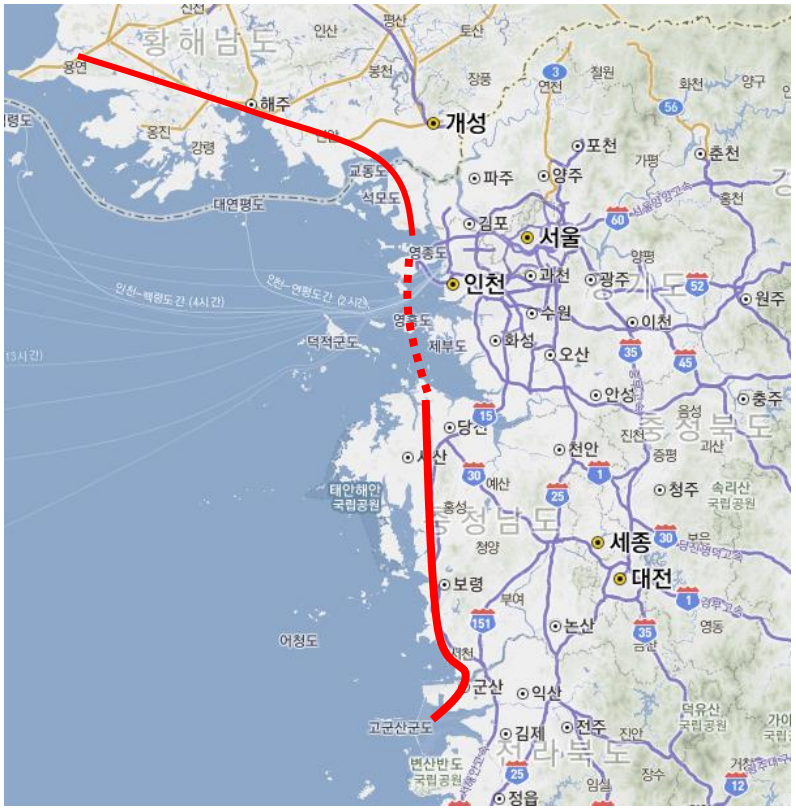
태안반도는 미래 한국 발전축의 교차로

- 새만금~태안반도~인천~해주~평양~신의주 *태안반도-인천공항 해저터널
- (도쿄)~(시모노세키)~부산~대전~태안반도~(산동)~(베이징, 상하이)
- 섬을 디딤돌로 해양으로 가는 전략(격렬비열도, 백령도, 이어도, 독도 등)

03. 2040년 충남의 삶터: 태안반도

한중일 해저터널, 태안~인천공항 해저터널





감사합니다

충남인의 돌봄 안전망

충남여성정책개발원 송 미 영

CONTENTS

Ⅰ. 돌봄 울타리의 변화: 가족의 틀을 넘어

Ⅱ. 2040 충남, 품위 있는 노년을 그리다

Ⅲ. 빈틈없는 돌봄, 공동체에 답이 있다

Ⅳ. 2040 돌봄 안전망: 세 가지 이야기

Ⅰ. 돌봄 울타리의 변화

: 가족의 틀을 넘어

돌봄 울타리 변화: 돌봄의 사회화

- 생애 어느 지점에서 누구나 돌봄이 필요. 시기와 정도차이
  돌봄은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마음을 따뜻하게 데운다’

- 지속적인 건강한 성장과 발전은 돌봄의 토대 위에서 가능
  돌봄 수준은 우리 삶의 얼마나 튼튼한지 보여주는 거울

- 돌봄은 어느 한 시점, 한 대상에 국한된 문제가라기보다는 보편적 시민의 이슈(Kitty, 199)
  이런 이유로 미래사회에서 더욱 급속히 사회화 될 예측,
  돌봄이 사회적 자원으로 다루어져야 하는 이유임

CWPDI

돌봄의 사회화 – 돌봄의 사회적 책임

- 모든 이가 돌봄의 능력을 갖추고 보살피는 관계에 적절히 참여할 것을 요구(낸시 폴브레, 2007)

- 양육과 문화, 소프트웨어와 돌봄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성숙한 시민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공동체적 삶을 기획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바꾸어 내는 것임
  - 지역의 공동체적 기획 : 공동육아, 작은 학교, 요양시설 등 (조한혜정, 2006)

CWPDI

돌봄 울타리의 변화: 사회적 돌봄의 지역화

- 초저출산과 초고령화 공존하는 충남의 미래

  ‘아이 돌봄과 반대로 노인 돌봄 부담은 참을 수 없는 분노, 공포, 수명연장에 대한 저주 !

-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가족, 찬구, 동료 중에 노인돌봄에 대한 부양부담으로 인생의 어려움 겪을 수 있음

  사회적 차원에서 나이 듦을 배우고, 나이 듦의 두려움 껴안기

- 가족을 넘어 느슨하지만 친밀한 지역공동체의 역할 중요

  정부의 공적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돌봄 틈새를 지역 공동체들이 메워가야 함

CWPDI

지역공동체의 발견과 돌봄 가능성

- 지역사회 주민들간의 정서와 경제적 자원이 공유되는 생활공동체, 그 가운데 마을, 마을 속에 삶의 과정이 있음
  - 학생, 회사원, 청년, 주부, 할아버지 등 마을에서 생산하고 배움 → 건강한 마을살이와 튼실한 마을 살림을 꿈꾸는 중심에 돌봄이 있음
- 지역사회 돌봄(Community Care): 시설중심의 돌봄서비스 보완으로 시작, 최근 돌봄 공백을 해결해가는 힘을 지역공동체에서 찾기 시작함(성미산 마을, 재미난마을 등)
- 육아, 양로, 교육, 주거 등 다양한 돌봄의 문제를 지역사회를 통해 풀고 있음. 지역과 돌봄의 결합, 지역에 맞는 모델?

Ⅱ. 2040 충남, 품위 있는 노년을 그리다

정든 곳에서의 노화 (Aging in Place)

- 인구고령화를 새로운 성장기회로 변화시키기 위한 준비가 필요함. '장수' 라는 선물, '건강하게 나이 들기'
- 지역적 차원의 포용적인 돌봄(Inclusive Caring)
- 정든 곳에서의 노화 : 지금까지 살아온 곳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을 의미 / 지금까지의 삶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일상적 돌봄과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
  - 1980년대 뉴질랜드에서 시작
  - 돌봄이 필요한 노인이 가능한 이주를 덜하도록 돕는것
  - 좋은 돌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개인의 손실예방으로 지속 가능한 삶을 지원하는 것

CWPDI

건강하고 활기찬 노년

- 2040년 충남은 지역사회에서 노인 거주 및 돌봄이 가능한 환경이 되어야 한다는 지역적 합의가 상식이 됨
  - 충남의 이미지는 보수적 → 진보적, 개방적, 건강하고 활기찬 지역으로 변화됨
- 노인 돌봄 인력 처우 우수, 노인 돌봄서비스 질이 매우 높음
- 노인 자택거주, 부분 돌봄, 전체 돌봄 시스템 체계화
- 충남은 치매지역책임제 정책 확산, 다양한 치매 돌봄 서비스, 틈새시간 돌봄 서비스및 프로그램 운영되어 주부양자 부양부담 거의 사라짐

CWPDI

대화가 있는 황혼 : 노인 자살율 0%

- 자녀 및 가족에게 경제적 부양부담 주지 않는 친환경
  노인행복정책(주거정책)이 노년기 삶의 질 높여줌

- 음식, 청소 등 로봇이 일상생활 지원하여 시간적 여유 많음
  - 친구, 이웃들이 있어 대화, 여행, 식사 함께, 외로움 제로

- 반려동물(pet therapy)과 함께 할 수 있어 행복 !!

- 경로당 여가프로그램, 텃밭 가꾸기, 사회적 경제(일자리) 등
  노년 문화, 노년 일터, 노년의 삶 형성

- 모든 마을, 독거노인의 외로움 해소 및 편안하고 안정된
  노후보장, 노인의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밀착형 서비스

CWPDI

Ⅲ. 빈틈없는 돌봄,
공동체에 답이 있다

공동체에 의한 돌봄이 곧 공동체를 위한 돌봄

- 지역공동체 돌봄 : 정부나 지자체로부터의 의존성을 줄이고, 공유재 관리, 사회적 경제, 자율적 공제조합 방식의 복지를 지향하며, 주민들의 생활공동체가 복지의 한 축으로 가능 (김형용, 2016)

- 지역공동체 돌봄 생태계 활성화하기 위한 요건
  - 주민과 돌봄대상자를 지역사회 돌봄 관계망(마을복지위원회, 돌봄품앗이 학교 등)을 통해 연결
  - 돌봄 공동체를 이끌어 갈 리더(돌봄감수성) 양성 및 역할
  - 주민자치조직 리모델링 등 컨설팅하는 중간지원조직확대

- 공동체 활성화는 공동체를 위한 돌봄 확장, 질향상, 예산절감

CWPDI

자치와 연대로 매듭짓는 돌봄의 안전망

- 지역사회를 통한 돌봄은 참여자들 간의 공동체성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하느냐가 핵심
- 공동체를 통한 돌봄은 지역의 자원과 주민참여를 동력으로 하고, 지역의 관점에서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발상과 실험적인 시도 필요
- 충남, 마을 만들기, 농촌개발사업, 지역사회 복지사업, 주민자치사업 등 협동조합,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 형태의 돌봄 사례 생겨남
- 지역사회와 연계한 돌봄은 마을단위: 독거노인공동생활제도 보육품앗이, 공동육아조합, 농번기 주말 돌봄방 등

CWPDI

Ⅵ. 2040 돌봄 안전망
: 세 가지 이야기

2040 돌봄 안전망 1: 돌보는 사람이 행복한 충남

- **돌봄 시간과 돌봄 네트워크의 보장**
  - 노동시간 유연화, 일 · 생활균형 문화 확산
  - 지역사회 돌봄 환경 조성 방안
    - ◆ 휴식공간 및 소통공간 마련
    - ◆ 직장에서 일생활 균형 지원, 남녀 평등문화 정착
    - ◆ 가족내에서 성평등한 가족문화, 남성의 적극적 돌봄참여
- **돌보는 사람을 위한 돌봄의 필요**
  - 돌봄 노동자 : 처우개선, 조례제정, 돌봄종사자지원센터
  - 가족 돌봄자 : 돌봄자지원법(영국), 돌봄네트워크 확대

CWPDI

돌봄 안전망 2: 생활하기 좋은 마을의 시작 '돌봄 품앗이'

- **주민자치에 의한 돌봄 품앗이**
  - 주민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주민자치방식, 지역공동체(주민과 이웃 참여)로서의 돌봄
- **지방정부의 정부육아정책 패러다임 변화**
  - 지역사회중심의 육자지원으로 정책적 접근(건가법, 가족친화법(지역사회차원 분담, 시설과 공간 충족, 마을마다 공동육아나눔터 설치, 주민들 돌봄품앗이 등
- **충남형 돌봄 인프라 준비에 박차를**
  - 지역단위 돌봄 품앗이 양적 확대, 여건조성(주민리더 양성, 공간마련, 주민자치역량강화 교육 등)

CWPDI

2040 돌봄 안전망 3: 1차 의료의 꽃, 주치의 제도

- 작동하지 않는 의료전달체계
  - 건강보험 인프라가 훌륭하나, 1차, 2차, 3차 의료전달 체계가 작동하지 않는 것은 1차의료인, 주치의 제도가 없기 때문
- 1차 의료의 꽃, 주치의 제도
  - 최초접촉 및 진단, 조정기능(판단), 지속성(관계), 포괄성(정보), 가족 및 지역사회 연계성(개별진료 및 연계)
  - 1차 의료에서 환자와 2,3차 병원과 지역사회 연결, 조정
  - 비용절감, 건강수준 향상, 입원과 외래 방문율, 검사 및 시술횟수, 약품처방 낮춘다는 보고가 있음

CWPDI

감사합니다.

2018년 제1회 “충남 미래연구포럼” 발표자료 (2018. 3. 20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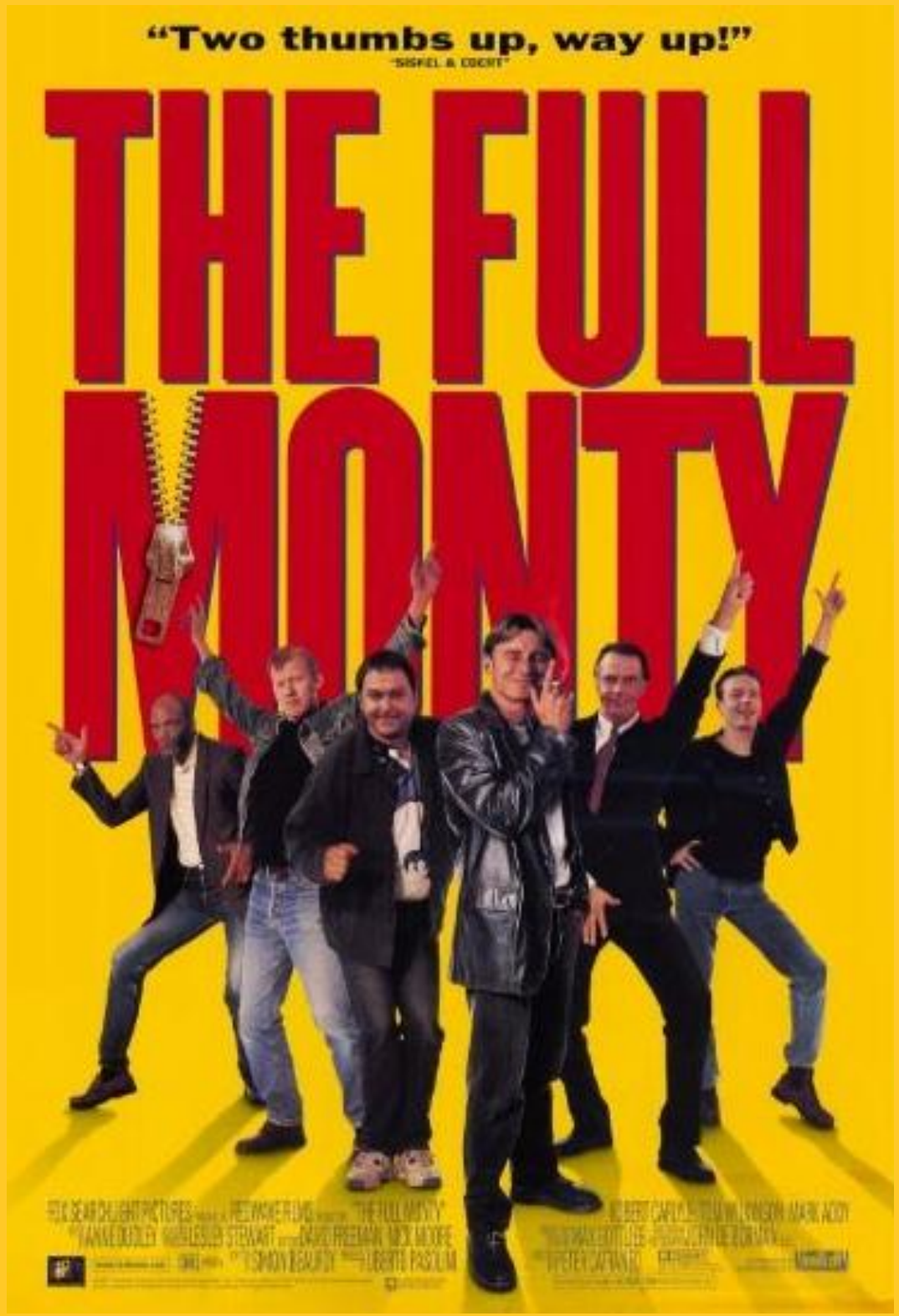
충남 미래경제와 먹거리

목 차

Ⅰ. 현재 충남경제의 문제는?
Ⅱ. 미래 충남경제의 과제는?
Ⅲ. 미래 충남경제의 먹거리는?
Ⅳ. 향후 충남경제의 실천전략은?

이 관 률 (충남연구원)

* 본 발표는 “충남의 미래 2040(2017)”중, “수풀경제를 일구는 충남”과 “미래먹거리에 대한 상상”을 발췌 및 재구성 한 것임.


"Two thumbs up, way up!"
SISKEL & EBERT
THE FULL MONTY

Ⅰ. 현재 충남경제의 문제는?

01 현재 충남경제의 문제는?

경제의 지역 내 순환, 산업의 분야 간 순환이 되지 않는 충남의 지역경제

· 지역 내에서 생산- 소득-소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되지 못함 : 이식된 수출 제조업
· 지역 내에서 농업 -제조업 -서비스업의 순환구조가 취약함 : 단절된 전후방 산업구조

선순환 되지 못하는 충남 경제의 이유

· 이식된 수출 제조업이 지역의 농업과 서비스산업을 발전시킬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
· 제조업에 비해서 취약한 농업과 서비스 산업 기반 : 지역 산업의 다양성 저해
· 지역의 자원과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제조업 구조: 충남의 입지우위 취약

지속가능한 미래의 충남경제를 위해서는 지역경제의 순환구조를 마련해야 함

·세계의 경제흐름은 서비스화와 글로벌화로 진행되고 있음
·지역적으로는 소비재 경공업이 활성화 되고 있고,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

Ⅱ. 미래 충남경제의 과제는?
- 수풀경제의 구축 -

02 미래 충남경제의 과제는?

수풀경제의 개념과 목적

· 개념 :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존재하고, 상호 간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진화하는 경제체제

· 목적 : 다층적 순환체계를 구축해 충남의 경제기반을 다양화하고 안정화 함

수풀경제의 구축전략

· 재화의 다양성 : 충남에서 생산되는 제품, 기술, 서비스의 다양화

· 지리적 확장성 : 충남 - 국가- 세계로 경제순환 범위의 확대화

수풀경제의 구축방안

· 농어업의 부가가치화 : 작물 위주 농업에서 탈피하여 기술, 문화, 복지, 바이오산업으로 확대

· 제조업의 기술 혁신 : 부가가치가 높은 소재부품산업으로 전환 및 기술혁신체제 구축

· 서비스업의 글로벌화 : 생산자 서비스업과 MICE 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

Ⅲ. 미래 충남경제의 먹거리는?

03 미래 충남경제의 먹거리는?

바이오 산업의 꽃 그린바이오

· 기존 레드 바이오 중심에서 벗어나 충남이 경쟁력이 있는 그린바이오에 주목
· 서산-홍성-예산의 그린바이오 축과 천안-아산의 레드바이오 축을 형성
· 충남의 농업은 먹거리 생산의 기능에서 탈피해 바이오산업의 기반으로 작동

친환경 동력장치산업

· 이차전지, 수소연료전지와 같은 친환경 동력장치산업의 지속적인 성장
· 2030년 이후, 내연기관의 중단으로 친환경 동력장치산업에 대한 수요 급증
· 천안 - 서산-내포-논산을 잇는 친환경 동력장치산업 벨트의 형성

03 미래 충남경제의 먹거리는?

개인정보 삭제산업

·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해 개인정보의 유출 방지 및 과거 기록의 삭제 수요 증대

· “충남보안산업지구”를 조성해 산업 규제 특례가 가능케 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함

· 보완산업 기업체와 유기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

바다를 활용한 해양레저 산업

· 충남 해양레저는 바다와 산, 육지와 섬을 잇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이 가능함

· 리아스식 해안을 활용한 야생적인 프로그램과 섬을 활용한 편안한 프로그램도 가능하며, 양자의 혼합화도 가능함.

· 해양자원 조사와 발굴, 민간자본 유치, 해양레저 인재 육성이 요구됨

Ⅳ. 향후 충남경제의 실천전략은?

04 향후 충남경제의 실천전략은?

모든 가능성의 시작 - 충남비즈니스혁신아카데미

· 충남비즈니스혁신센터는 충남도가 설립 및 운영하는 공공교육기관이자 사회혁신주체임

· 충남비즈니스혁신센터의 교육생은 충남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이 갖고 있는 다양한 실무적인 문제를 과제로 부여받고,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학습하게 됨

· 충남에서 일자리와 학습기회를 얻기 위해 국제적, 국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함

제조업 중심의 지 원정책 전환

· 충남의 경제정책은 단절된 농어업 -제조업 - 서비스업의 순환구조를 형성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함

· 충남 경제정책의 영역을 제조업 중심에서 탈피해 농어업과 서비스업으로 확대하고, 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함

04 향후 충남경제의 실천전략은?

충남산업생태계의 효과적 구축

· 지방정부 중심의 산업생태계가 아닌 지역의 경제주체가 중심이 되는 산업생태계 구축
· 지역기업의 정보교류와 기술협력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회 마련이 중요
· 충남산업생태계에 대한 폭 넓은 연구와 논의구조가 마련되어야 함

공유경제,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 강화

·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제는 새로운 경제방식의 맹아로써 기존의 시장경제에서 대응하기 어려운 사회적 수요를 공급함
· 충남 사회혁신이라는 관점에서 공유 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육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됨
· 장기적으로 공유경제와 사회적 경 제가 새로운 충남경제의 한 축이 되도록 육성 필요

충남의 미래경제는
수풀경제를 통해 다층적 순환구조로 전환해야 하고,

미래먹거리로 그린바이오산업, 친환경 동력장치산업,
개인정보 삭제산업, 해양레저산업을 육성해야 합니다.